성령 강림 대축일
(청소년 주일,
생명의 날)

서울주보

2009년 5월31일(나해)
- 제1685호 -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3층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성령 강림〉, 11세기, 채색 삽화, 26.6×19.1cm, 폴 게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미국

성화 해설 이 작품은 독일의 마인쯔성당에서 사용되었던 전례서를 장식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들 가운데 한 점이다. 성모님과 제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꽃 모양으로 각자의 머리 위에 내려오고 있다.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입당송 지혜 1,7 참조

제1독서 사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1ㄱㄴ과 24ㄱㄷ.29ㄴ-30.31과 34(⊙30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또는 갈라 5,16ㄴ-25〉

부속가(성령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또는 15,26-27; 16,12-15〉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생명의 말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제자들은 스승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렸다. 그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였다. 스승의 말씀과 기적의 능력 그리고 그 심오한 혜안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상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스승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살해당하고 만다. 스승은 이러한 사건에 대항조차 하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었다. 스승의 가르침과 행적은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일 뿐이다. 그래서 더러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숨어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아무도 눈치 챌 수 없는 숨겨진 장소에… 누군가가 그들이 숨어 있는 집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문을 꽁꽁 잠가 놓고서….

스승의 죽음과 함께 삶의 의미를 상실한 제자들에게 이 세상과 이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장소에 은닉하면서 희망을 상실한 채 폐쇄적이자 비관적으로 머물 수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 어떤 이들에게조차 신뢰를 줄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들끼리 외로이 숨어 지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설사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 채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드러내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 즉 자신들의 내면으로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과 이웃들로부터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킨다. 그것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장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집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한 기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한 곳으로 오리라고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둡고 폐쇄적인 모든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 제자들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신다. 예기치 못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발현은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도록 한다.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선사한 것뿐만이 아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몰래 숨고 자신을 철저히 은폐하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세상에 대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선사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사 받은 성령은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자 생명이다. 성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하는 원천인 것이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말씀의 이삭

잘 사는 법

이금주 벨라뎃다 | 방송작가

'십자가를 억지로 질질 끌고 가거나 떨쳐버리지 말며, 잘라 내거나 던져버리지도 숨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짜증을 내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며 공포나 고의적인 반항도 없이, 자신을 아끼지도 말고, 부끄러워하거나 자기학대도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으로 당겨 둘러매야 합니다' 는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에 나오는 글귀로 이즈음 내가 찾아낸 처방전이다. 수첩에 적어놓고 고질병인 '불평' 을 없애기 위해 자주 들여다보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현명해져서 삶에 대한 불안과 욕심도 없어지고 한결 여유로울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다. 화를 못 참는 것도 이기적인 것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심장은 딱딱해져서 웬만해선 눈물도 동정심도 안 생기고 급기야 아무도 안 믿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밤을 새우며 힘들어한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내 욕심이 안 채워져서다. 잘 안 되는 내 일이, 내가 받은 상처가 분하고 속상해서지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을 반성하느라 잠을 못 잔 적은 거의 없다.

처음 일을 시도할 때 드라마 작가가 되어 하느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단 한 번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했었다. 그런데 얼마 안가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인심을 쓰시려면 조금 더 쓰시지 감질나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 일단 감사하기는 한데 그런데 이왕이면 다른 사람처럼 더 확실하게 안 봐 주신다면서 떼를 쓰고 있었다. 왜 하필 저예요? 재능을 주시려면 월등하게 주시던가, 좀 더 운이 좋게 해주시던가. 하다못해 로비력이라도 뛰어나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작가로 만들지를 마시던가. 나는 죽을 만큼 힘든데 하느님은 빤히 보고만 있는 것 같아 약이 올라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런데 불평을 하다 하다 지쳐 이제야 겨우 깨달은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느님 허락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딱 그만큼 하느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감사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작가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안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만 알아낸 것 같다. 하느님, 그런데 그럼 그 다음은요 ? 어느새 또 불평이 따라 붙는다.

"사람은 관 뚜껑 덮어야 다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이 세상 눈 감기 전까지 언제나 매사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한다."

오늘 아침, 팔순 어머니의 안부 통화 끝의 당부이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2

'대리모' 는 인간 출산의 존엄성에 위배되기에 비도덕적이다

"여성의 존엄성, 혼인의 일치성, 그리고 인간 출산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이 '대리모' 에 의한 출산이다. 어느 여성의 자궁에 그와는 유전적으로 다른 배아를 이식시키거나, 아기가 태어나면 고객에게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신하는 행위는 임신과 모성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친부모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교육해야 할 아이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출산을 인큐베이터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의료인 헌장 29항〉.

여성이 돈을 받고 자궁을 빌려주는 행위나 자궁을 빌리는 행위는 비도덕적입니다. 이는 혼인과 출산의 본질적 의미와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생명을 상품화하는 행위이며 자기 어머니의 자궁에서 임신하고 자라야 할 아이의 권리와 존귀함을 해치는 일입니다.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까지 기증한 경우라면 자신의 아이를 파는 행위가 되므로 더욱 비도덕적입니다. 그러나 '대리모' 를 택하는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이므로 브로커의 횡포, 중도의 계약파기로 인한 혼란, 출산 후 심리적 공황상태, 건강관리 소홀 등과 같은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인간 생명은 그 존엄성에 부합하게 부부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24차 청소년주일 담화문(요약)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제24차 청소년 주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작년 7월, 시드니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대회를 떠올려 봅니다. 이 대회 동안 성령께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1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될 세계 청년 대회를 향한 여정에 있습니다. 그 대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콜로 2,7 참조)입니다. 이 세계 청년 대회를 기다리면서 함께 준비의 여정을 걸어봅시다. 2009년 청소년 주일의 주제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1티모 4,10)이고, 2010년에는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마르 10,17)라고 한 젊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우리는 오늘날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청년기에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은 왜 있을까?",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이 강하게 제기되는 때일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은 학업의 어려움, 실업, 가정 분란, 우정이나 애정 관계의 위기, 질병이나 장애 등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에 직면할 때 뚜렷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에게 희망은 단순한 이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1티모 4,10). 예수님께서는 젊은 바오로를 만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알아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모범을 따라 '위대한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희망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지닌 기쁨과 사회적 참여를 통해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머무르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현존이 그들의 기쁨과 평화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영적인 여정에 희망의 모후이신 동정 마리아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전구하시고, 시련의 어두움을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제가 날마다 기도 중에 여러분 모두를 기억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 드립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소식

오늘(5월31일)은 '성령 강림 대축일' 입니다.

6월7일(일)은 '삼위 일체 대축일' 입니다.

교황청 '사제의 해' 선포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3월 교황청 성직자성 정기 총회 참석자들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2009년 6월19일~2010년 6월19일을 '사제의 해' 로 선포하셨습니다.

제15회 '생명의 날' 담화문 발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2009년 '생명의 날' 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명문화 건설의 주역입니다' 라는 제목의 제15회 생명의 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담화문 전문은 cbck.or.kr 참조).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한국의 법치주의' 세미나 개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발표한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심도있게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문의: 460-7622

· 때, 곳: 6월12일(금) 오후 3시~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1.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가 제출한 연구 보고서 「2008 인터넷 사용에 관한 한국 천주교의 현황」을 승인.
2. 제15회 한일주교교류모임(11월17일-19일)의 주제는 "故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생각하며" 로 하여 일본 오사카 대교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
3.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 평신도가정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5회 아시아청소년사목자대회(11월27일-30일)를 지원하기로 함.
4. 외국 교회의 미사예물 요청 내용을 심의하고, 인도네시아 주교회의, 인도 넬로르 교구, 가르멜 수도회 인도 말라바르 관구를 지원하기로 함.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6월1일 이치열 안토니오 신부(29세) 1983년, 용산

사목국 가정사목부 담당 서울대교구 '선택' 업무 이관

사목국 가정사목부에서 담당했던 서울대교구 '선택' 을 5월1일부터 청소년국 청년부로 이관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6월 모임

학년	때	곳	문의
중1	6월14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2	6월21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9954-2123
중3	6월7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577-2123
고1	6월7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61-2123
고2	6월21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72-2123
고3	6월14일(일) 9시	성신교정 대건관 서편성당	010-8803-5695
일반	6월13일(토) 14시	한국 순교 복자 수녀원	010-8803-56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관리국 직원(재산관리 업무)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해당 업무 유경험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 접수: 6월20일(토)까지 우편 접수(전화 문의 사절)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서울대교구 사무처

서울대교구 수락산성당 여사무원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가능자 / 문의: 934-0081(면접은 개별 통보함)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제출서류 반환 안 됨) / 6월8일(월)까지 접수

평화화랑 제1, 2전시실: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초대전

평화화랑은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초대전을 6월3일(수)~9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평화화랑

교구청 알림

Young-Senior 아카데미 노년준비교육(1-3기)

· 내용: 멋진 인생 후반기를 위한 교육 및 클럽활동 / 대상: 55세 이상 서울시민(장소당 40명)
· 교육기간: 1기 6월15일-8월10일 매주(월·목) 15시-17시 / 후원: 서울시 노인복지과
· 곳: 종로, 도봉동, 등촌1동, 구로3동, 월계동
· 교육비: 총 8만원(서울시 7만원, 본인 1만원)
· 주관: 사목국 노인사목부,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 765-8458(6월12일까지 선착순 접수)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업무지원팀 직원 모집

· 대상: 청소년지도, 상담,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생 우대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 6월5일까지 방문·이메일·우편 접수
· 주소: (우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5 교구청별관 4층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제출 서류 반환 안 됨,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면접 실시 / 근무처: 역촌동 '주'
· 문의: 727-2089(c-youth@catholic.or.kr)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때: 6월5일(금) 오후 2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27-2123, 4 서울대교구 성소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대상: 후원회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 때: 6월1일(월) 오전 10시20분
· 곳: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921-5094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가르멜 남자 수도회	6. 7. 14시	인천 가르멜 수도원	010-3169-7416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6. 7. 14시	평창동 수련소	011-9852-9817
로사리오성모의 또미니코수녀회	6. 7. 14시	성북동 한국 분원	011-1731-7123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6. 7. 14시	돈암동 본원	010-6259-6364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6. 7. 10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2층	010-2895-6430
성령 선교 수녀회	6. 7. 14시-17시	명륜동 본원	010-5730-6322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성 바오로 딸 수도회	6. 6. 15시	미아리 본원	010-2264-2941
성 아우구스띠노 수도회	6. 6. 14시	뚝섬수도원(뚝섬역6번출구)	010-9204-1262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6. 7. 14시-17시	정릉본원(샘물모임)	016-332-2885
파티마의 성모 프란치스코 수녀회	6. 7. 14시	수지 본원	011-9176-1212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6. 7. 14시-17시	보문동 수녀원	011-9319-1690
한국 외방 선교회	6. 7. 13시	한국 외방 선교회 본원	010-4555-7526

알림

모임

씨튼 피정의 집 향심기도 소개 피정
· 때, 곳: 6월6일(토), 씨튼 피정의 집 / 744-9825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일일피정
· 강사: 홍성만 신부, 김민자 수녀(회비: 3천원)
· 때, 곳: 6월8일(월) 10시-17시, 불광동성당 / 773-3030

성체현시와 함께하는 묵주기도
· 때: 6월4일(목) 10시-15시30분, 망우1동성당(주최)
· 안수와 미사(중식제공) / 문의: 437-8984

예수성심성월 대피정
· 강사: 이창진 신부(미사, 말씀, 안수) / 010-8000-6946
· 때, 곳: 6월1일(월) 12시-17시, 용산성당(전철 5·6호선 공덕역 8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2번)

15-A 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은혜의 밤
· 강사: 이종남 신부(미사, 말씀, 안수)
· 때, 곳: 6월5일(금) 19시-22시, 발산동성당
· 문의: 2696-1945, 011-350-4929

복음화학교 월례 기도모임(새천년복음화사도회)
· 내용: 미사(이준성 신부), 기도 및 신앙체험, 말씀(조영동-새천년복음화 연구소 소장) / 753-8765
· 때, 곳: 6월7일(일) 오후 2시, 가톨릭회관 7층

묵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류형렬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6월1일(월)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 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의정부교구 3 · 4지구 1일 피정
· 강사: 정구중(꽃동네 말씀 봉사자) / 011-1746-2120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3·4지구 봉사회(중식 제공)
· 때, 곳: 6월1일(월) 10시-16시30분, 의정부성당

선교세상과 함께 하는 음악 피정
· 강사: 이준용 신부, 선교세상(단장: 고영민)
· 때, 곳: 6월1일(월) 10시30분-16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010-3661-5500, 874-6346 선교세상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와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철야 기도회(문의: 043)533-5710)
· 기도: 김진방 회장(미사: 이승용 · 류한영 신부)
· 때: 5월2일 · 16일(토) 21시30분-4시(22시30분 미사)
· 곳: 배티성지(주최) 조립식 강당(성사, 면담)

대건 아프리카 선교후원회 '열린 치유 대 피정'
· 대상: 누구나(회비없음) / 강사: 방부억 신부
· 미사: 한성호 신부 / 은혜의 시간: 한정옥 부회장
· 때: 6월6일(토) 낮 12시30분-오후 5시30분
· 곳: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문의: 757-1416, 7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내용: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찬양, 나눔
· 때, 곳: 6월6일(토) 22시-5시, 동성고등학교(혜화동) 백주년 기념관 / 019-201-4924, 019-470-2416
· **찬양팀(악기, 보컬) 모집중** (www.totustuus.or.kr)

가정선교회 30차 가정 영성 성숙 1일 피정
· 대상: 가정치유와 성화를 원하는 누구나(회비 없음)
· 강사: 서정혁 신부, 이요셉 소장(한국 웃음치유 연구소), 이현주 회장 / 김밥 제공, 미사준비
· 때, 곳: 6월3일(수) 10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777-1773, 010-5674-8511, 011-9135-7815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외적 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치유, 상담, 강의, 미사(회비없음, 중식제공)
· 때, 곳: 6월3일-24일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6월3일(수)	치유란 무엇인가? / 이해봉 회장
6월10일(수)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 최영배 신부

교육

영성생활상담소(前영성생활연구소) 프로그램
· 성직자, 수도자를 위한 개인상담, 그룹상담, 심리검사 / 776-8405(http://rcckorea.co.kr)
· **참만남 그룹**: 6월22일(월)-26일(금) 9시30분-17시30분

예수회 6월 영성강좌
· 주제: 예수님 숨은 생활 30년 / 회비: 1만원
· 강사: 최시영 신부 / 문의: 718-3896, 7 후원회
· 때: 6월3일(수) 오후 1시30분-4시30분
· 곳: 서강대 이냐시오관 강당(개인컵 지참)

선교훈련 시그마코스 13기, 14기
·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 개인 또는 단체
· 때: 6월12일(금)-14일(일), 7월10일(금)-12일(일)
· 곳: 인천시 가정동 기도의 집(주최: 미래사목연구소) / 문의: 031)985-5670, 011-9124-7174

聖 최경환 가정교실
· 대상: 기혼 남성 50명(주최: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 문의: 777-2013(팩스: 778-7427)
· 때, 곳: 6월13일-7월18일 매주(토) 15시-6시30분(6주간), 가톨릭 회관 7층 대강당(회비: 5만원)

천주섭리수녀회 섭리체험 자연프로그램
· 주제: 섭리 안에서 다시 만나는 나 / 대상: 남녀 청년
· 때: 6월20일(토) 오후 1시-21일(일) 오후 1시
· 곳: 다물 피정의 집(강원도 인제군) / 회비: 3만5천원
· 문의: 010-3940-3635, 010-6822-4348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 31차 학술회의
· 주제: 그리스도 신앙과 현대치료간의 대화-대안 모색(개회사: 심상태 몬시뇰, 축사: 강세종 회장)
· 논평: 박현민 신부, 이승욱 교수, 최현민 수녀
· 사회 및 종합토론: 송용민 신부 / 주최: 한국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새천년 복음화 사도회
· 발제: 곽승룡 신부, 고혜경 박사, 양은용 교수
· 때, 곳: 6월13일(토) 오후 2시-6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 문의: 925-3991, 031)227-7857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 소장: 박정자 수녀 / 501-2912(www.enneagram.kr)

내적여정 기본 1단계	6월11일(목)-12일(금) 10시-16시	명동성당 교육관 303호

에니어그램
· 강사: 윤엘리사벳 / 문의: 010-8502-9256
· 곳: 미카엘성당(전철 3호선 경복궁역) / 주최: 행복을 만드는 집(http://cafe.daum.net/Enneagram)

1단계	6월13일(토)-14일(일)	**토요일**: 14시-18시 **일요일**: 10시-17시
2단계	6월27일(토)-28일(일)	
3단계	7월5일(일)	

모집

'한마음 공동체 나눔의 집' 봉사자 모집
· 서울역 인근의 쪽방, 행려인,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매일) 하는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 단체임(주일과 평일에 주방과 배식을 담당할 남녀 자원봉사자를 모집함) / 3789-5425 한마음 나눔(지도: 조창수 신부)

미사

한국 외방 선교회 월례미사(문의: 3673-2525)
· 때, 곳: 6월3일(수) 오후 2시, 명동성당 소성당

성모자애보육원 후원회 미사(문의: 937-6900)
· 때, 곳: 6월1일(월) 14시, 성모자애보육원 경당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때, 곳: 6월5일(금) 오후 2시30분,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센터 2층 / 문의: 929-2977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 위령미사
· 후원회 미사: 6월4일(목) 오전 11시
· 위령 미사: 6월25일(목) 오전 11시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74-8025

첫토요일 신심 다락방 미사
· 집전: 이범주 신부(중식 제공) / 문의: 442-8511
· 때: 6월6일(토) 오전 11시(30분전 묵주기도)
· 곳: 암사동성당(주최) / 8호선 암사역 1번 출구
· **하느님의 뜻 영성 교육**: 당일 14시 / 442-8511

광주대교구 재경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때, 곳: 6월1일(월) 11시, 까리따스 수녀원(방배동) / 062)380-2280, 1 광주대교구 성소전담

첫토요일 신심미사
· 때, 곳: 6월6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756-3473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영어로 배우는 성경공부와 영어미사
· 때, 곳: 6월7일(일) 15시-17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당일접수(www.oblates.or.kr)
· 문의: 010-2778-7145 오블라띠 선교 수도회

가정성화와 생명수호 월례특강 및 미사
· 주제: 알코올 중독 / 이미형 교수(인하대 간호학과)
· 때, 곳: 6월2일(화) 13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회비없음) / 727-2071(www.ihome.or.kr) 가정성화사도직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과 함께 입대 자녀와 회원을 위한 미사 / 문의: 776-0457
· 때, 곳: 6월1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예수 성심 기도 미사(절두산 후원 로사리오회)
· 순교신심 기도하고 싶은 분(전대사를 위한 미사)
· 때: 6월5일(금) 12시(기도) · 13시(미사)
· 곳: 절두산 순교성지 성당(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11-205-8003(중식제공)

아현동 말씀의 선교 수도회 후원회 미사
· 강의, 고해성사, 중식 / 문의: 362-3918
· 때: 6월1일 매월 첫째주(월) 오전 11시-오후 1시
·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와 미사**: 6월22일(월) 매월 넷째주(월) 오후 1시30분-5시(기도: 박용해)
· 문의: 312-0662, 011-245-0121(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하차)

故윤형중 신부님 선종 30주년 추념미사(문의: 3672-0253)
· 주제: 2009 기쁨과 희망, '교회의 사람'을 찾아서
· 때, 곳: 6월15일(월) 14시-17시, 명동성당 꼬스트홀

1부	영상물 관람과 추모미사	2부	윤형중 신부의 회고및 공개토론
발제1	윤형중 신부의 생애 회고	발제4	윤형중 신부와 언론
발제2	윤형중 신부와 순교자현양사업	발제5	윤형중 신부와 민주회복국민회의
발제3	윤형중 신부의 신학사상	주최: 기쁨과 희망사목 연구원	

안내

가정문제상담 '아름다운 가정 상담소'
· 내용: 가족 갈등, 폭력, 부부, 이혼위기, 노인, 교정치료 / 온라인 상담(www.bhc.or.kr)
· 매주(월~금) 10시-18시 / 문의: 3288-1516

무료 가정방문 호스피스 봉사
· 대상: 6개월 이내 임종 예상 모든 환자
· 지도: 이경식 박사, 송광섭 신부
· 문의: 887-2311 삼성산 호스피스 봉사회(주최)

작은예수회 창립25주년 감사제
· 모두 초대함 / 강론: 박효철 · 박성구 신부
· 때: 6월11일(목) 11시-16시 / 문의: 777-6444
· 곳: 작은예수회 마을(경기도 현리) / 지역별 출발있음

제3회 가톨릭국악성가 축제
· 내용: 예수고난회 강수근 신부와 함께하는 국악성가 축제(http://cafe.daum.net/suguncp)
· 때, 곳: 6월27일(토) 13시30분-18시, 왕십리성당(주최: 예수고난회) / 011-612-0061 회장, 010-9066-6805 총무

명동성당 6월 예비신자 교리학교
· 환영식: 6월7일(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별관

금요반	오후 7시30분	교육관 305호	774-1784
주일반	오전 10시		

· 명동성당 성지미사: (월-토) 오전 10시, 지하성당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문화마당

하늘을 나는 신부

조민현 지음 | 성바오로 | 264쪽 | 1만 원

미국 뉴왁 교구의 조민현 신부가 한국 신학교에서 4년, 미국 신학교에서 4년, 이후 본당 사목을 하며 경험한 너무나도 다른 두 문화와 두 교회의 모습을 담은 책이다. 또한 그 속에서 면면히 이어지는 보편된 가톨릭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희망의 기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우엔 반 투안 지음 | 오영민 역음 | 바오로딸 | 208쪽 | 9천 원

베트남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공산주의 정부에 체포되어 13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던 우엔 반 투안 추기경이 옥중생활을 기도로 승화하여 올린 묵상 글로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성경의 길을 따른 여정
(구약성경3-시서와 지혜서 / 신약성경 1-마태오 복음서)

생활성서 편저 | 생활성서 | 각 192쪽 | 각 1만 원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의 풍요로움을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시서와 지혜서'와 '마태오 복음서'가 새로 발간되었다.

성모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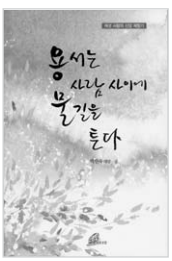
황난영 지음 | 김옥순 그림 | 바오로딸 | 40쪽 | 3천 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겪으셨던 성모님의 고통의 길을 15처로 나누어 묵상한 책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머니가 되시는 성모님의 여정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성모님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사랑합니다(1~3권)

반영억 지음 | 성바오로 | 348·362·298쪽 | 각 1만3천 원

미국에서 사목하는 반영억 신부의 평일·주일 강론을 2년간에 걸쳐 모은 모음집으로, 사제 생활 16년간의 말씀 선포의 결실이다. 전례력에 따라 총 3권으로 구성해 독자들이 전례력의 흐름을 이해하고, 매일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다.



용서는 사람 사이에 물길을 튼다

박인숙 대담·글 | 바오로딸 | 232쪽 | 8천5백 원

여섯 사람의 용서 체험을 인터뷰로 재구성한 책이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가르침을 체험을 통해 일깨워 줌으로써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행복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 전시회

· 입장권: 성인 1만2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 예매 및 문의: 1577-8968(www.renoirseoul.com)

관능과 환희의 인상주의 미술의 선구자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전시회가 9월13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 40여 공공 미술관 및 개인 소장품 110여 점을 전시한다. 빛과 색채의 화려함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화폭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작가의 예술철학을 느낄 수 있다.

관람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1천 원을 할인한다 (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1인까지 할인가능).

제15회 그린체리티 합창단 정기연주회 '베토벤 장엄미사'

· 입장권: 전석 1만 원 / 예매 및 문의: 3483-3233, 010-6391-1019

종교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해온 그린체리티 합창단의 제15회 정기연주회가 6월5일(금) 오후 7시30분, 여의도 KBS홀에서 있다. 김철회의 지휘,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베토벤의 장엄미사를 연주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라노 양은영, 알토 김선정, 테너 강훈, 베이스 이요훈이 참여한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프란치스코 사회복지 시설 '애네아의 집' 돕기에 쓰일 예정이다.**

연극 환상동화

· 입장권: 일반 2만5천 원, 대학생 이하 2만 원 / 예매 및 문의: 762-0010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6시·19시30분 / 일 15시·18시30분

사랑·전쟁·예술 광대가 들려주는 말을 잃어버린 음악가, 눈을 잃어버린 무용수의 이야기 연극 '환상동화'가 6월5일(금)~8월16일(일), 대학로 문화공간 이다2관에서 공연한다. 무용, 음악, 마임 등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수려한 대사와 아름다운 문장이 고전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고색 한지 공예 전시회(성령 강림)

· 문의: 011-9908-2629, 2696-1945 발산동성당(무료 관람)

우리나라 전통 한지 공예를 이용하여 성물을 창작하는 정신자(벨라뎃다, 발산동성당)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여 전시회를 연다. 5월30일(토)~6월1일(월), 발산동성당(전철 5호선 우장산역 3번 출구)에서 전시한다. 우리 전통 문양, 한지의 고풍스러운 멋과 함께 어우러진 많은 성물들(감실, 삼위일체등, 묵주등, 독서대 등)을 관람할 수 있고 특히 성령 강림을 맞이하는 '성령 칠은 등', 'Ave Verum(성체 안에 계신 예수) 등'을 만나볼 수 있다.